
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‘소년시대’ 걸크러시의 정석 이선빈, 동네 불량배들 때려잡는 ‘부여 흑거미’로 대체불가 매력 선사!

2023. 11. 8.



- “고난도 액션도 직접 소화!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”
- 부여 흑거미 ‘지영’으로 돌아온 이선빈, 임시완과 찰떡 호흡 예고!

대체불가한 매력을 과시하는 배우 이선빈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<소년시대>에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.

다채로운 매력과 개성이 돋보이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이선빈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<소년시대>에 합류했다.

<소년시대> 는 1989년 충청남도,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 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 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.

2016년 드라마 <마담 앙트완>으로 데뷔 후 2017년 인기리에 방영된 <38사기동대>를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고, <미씽나인>을 통해 신인상을 수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각광받은 배우 이선빈. 드라마 <크리미널 마인드><스케치><위대한 쇼><변외수사>, 영화 <굿바이 싱글><창궐><사라진 시간><오케이 마담><미션 파서블><공기 살인>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열일 행보를 보이며 대중과 꾸준하게 만나온 그는 최근 <술꾼도시여자들> 시리즈에서 특유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매력을 가감없이 드러내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며 걸크러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.

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 <소년시대> 로 돌아온 이선빈은 정의를 위해 주먹을 쓰는 부여의 흑거미 '지영'으로 분해 극의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다. 부여의 숨은 실력자이자 싸움계의 휴머니스트 '지영' 역을 통해 한지붕 아래 살게 된 소꿉친구이자 하루아침에 부여의 짱으로 둔갑한 온양 찌질이 '병태' 역의 임시완과 환상의 티키타카를 선보인다. 1980년대 충청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만큼 실제 충청남도 천안 출신의 이선빈은 “충청도 사투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을 드디어 만났다”며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. 여기에 <소년시대>의 이명우 감독은 “고난도 액션도 직접 소화해냈다.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”라고 극찬해 부여의 흑거미 '지영'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이선빈의 열연을 기대케 한다.

걸크러시 캐릭터의 진수를 선보일 배우 이선빈의 활약은 쿠팡플레이 시리즈 <소년시대>는 11월 24일(금)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쿠팡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, 쿠팡플레이는 이 외에도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상위 1% 천재들의 두뇌 배틀 서바이벌 <대학전쟁>과 어느 날 남편이 사라진 후, 그의 실종에 얽힌 비밀을 추적하며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여자의 이야기 <하이드> 등 다양한 작품의 공개를 발표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.

소년시대 1차 예고편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